

# 福을 짓다

광주역사민속박물관·비움박물관  
12월18일까지 민속품 200여점 전시

예로부터 행복한 삶을 이야기할 때 흔히 '오복을 갖추었다'고 한다. 유교 경전인 '서경'에는 오복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장수를 누리고, 부를 쌓고, 건강하고, 덕을 쌓아 천수를 누리는 것'이다.

옛 선비들은 관직에 나아가 이름을 떨치는 입신양명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과거 합격에 대한 열망은 특히 선비의 공간인 사랑방에 투영됐다. 선비가 글공부를 위해 먹을 가는데 쓰였던 벼루는 장수를 상징하는 동물 문양으로 디자인됐다.

예나 지금이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상에서의 복을 중요한 가치로 추구했다. 복을 받기 위해서는 '짓는다'는 생각이 강했던 것. 복을 받기 위한 마음과 선한 행실이 전제되어야 함을 뜻한다. 다시 전통 문화속에서 우리 조상들은 복도 짓는다는 개념을 상정했다. 옷을 짓고, 밥을 짓고, 집을 짓는 것처럼 복도 소중한 마음과 언행을 통해 지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복(福)의 의미를 다각도로 살펴볼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린다. 광주역사민속박물관이 오는 12월 18일까지 개최하는 '福을 짓다'전이 그것.

이번 전시는 다양한 민속품을 전시해 전통문화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알리는 데 기여해 온 광주 대표 사립박물관인 비움박물관과 공동 주최해 의미를 더했다. 광주역사민속박물관은 올해 지역박물관 활성화를 위해 비움박물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이번 전시는 그 연장선이다.

이번 전시는 비움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복과 관련된 민속품 200여점을 소개한다. 다양한 민속품을 매개로 복이 지나는 삶의 가치를 다각도로 조명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전시는 모두 3부로 구성돼 있다. 먼저 1부 '복을 빌다'에서는 복을 비는 일에 주목한 전통사회를 들여다보았다. 먹고 사는 일을 걱정해야 하는 현실에서 나와 가족 그리고 구성원의 안녕을 기원하는 일은 무엇보다 간절한 염원이었다.

대표적인 유물은 조왕중발이다. 가정신 가문데 조왕신은 재물을 담당하는 신이다. 조왕중발은 조왕신을 모시는 그릇으로 부뚜막 뒤에 올려놓았다. 매일 아침 우리에게 어머니와 할머니들은 우물가에 가서 새로 길러온 물을 채웠다.

전시장에는 가내의 평안과 부귀 번영을 가정신들에게 비는 것을 '성주상'과 '삼신상'으로 재현돼 있다.

2부 '복을 짓다'는 집이라는 일상 공간에서 볼 수 있었던 조상들의 복을 바라는 마음에 무게중심을 뒀다.

복과 관련된 글자나 문양이 새겨진 선비의 사랑방 도구와 안방의 세간을 볼 수 있다. 또한 가족의 식복을 책임지는 부엌의 식기류 등도 만날 수 있다.

안주인의 일상용품을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됐던 머릿장은 다복을 상징하는 박쥐문양으로 장식돼 있다. 부엌 찬장에는 복(福) 자가 새겨진 식기류들이 가득했고, 제례와 혼례, 회갑 등 특별한 날에 사



'안방 머릿장'

용했던 다식판에도 복(福) 자가 새겨져 있다.

태어나면서 삶을 마감할 때까지 일생 전반에 걸쳐 찾아오는 다양한 복의 모습들을 조명하는 자리도 마련돼 있다. 제3부 '복을 받다'는 태어나면서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다양한 통과의례를 매개로 복의 의미를 생각하는 코너다.

아기의 장수와 부귀를 염원했던 돌잔치를 비롯해 가문의 번성은 물론 화합을 바랬던 혼례, 부모의 무병장수를 소원하는 회갑례가 그것이다. 아울러 망자의 명복을 빌며 치르는 상례에 나타난 복과 관련된 다양한 자료도 엿볼 수 있다.

특히 전시장에서는 망자의 마지막 가는 길을 안내하고 위로하며 액운을 물리치는 역할을 했던 상여 장식인 꼭두도 볼 수 있다.

한편 이영화 비움박물관장은 "비움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다양한 민속품 가운데 출산부터 장례까지 복을 짓는 것과 연관된 민예품을 만날 수 있는 전시"라며 "우리 조상들이 복을 받기 위해, 아니 복을 짓기 위해 어떻게 살았는지를 함께 생각하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낮선 곳으로 떠나는 용기있는 여정

체험형 어린이 공연 '공주전', 26~27일 ACC



체험형 어린이 공연 '공주전' 공연 장면.

(사진제공 ACC 재단)

누구나 처음 경험하는 것은 어렵고 낯설다. 용기가 필요하고 주위 사람들의 격려가 필요하다. 특히 방 안에만 있는 아이에게 세상 밖으로의 여행은 모험 그 자체다.

낮선 곳을 향해 떠나는 용기 있는 여정을 담고 있는 체험형 어린이 공연 '공주전'이 관객을 찾아온다. 26일(오후 5시)과 27일(오후 2시·5시) ACC 예술극장 극장2.

특히 이번 공연은 사물 위에 프로젝트로 영상을 투영하는 미디어 아트 기법인 '프로젝션 매핑'을 활용했다. 화려하고 입체적인 무대에서 무용수들

의 자유로운 움직임에 초점을 맞췄다.

이를 통해 '처음'에 대한 응원과 아울러 코로나 19로 억압됐던 관객들에게 '두려움 없이 세상 밖으로 나가자'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공주전'은 (재)예술경영지원센터의 '2022 전국 공연예술 창작작가 유동 협력사업' 선정작으로, 안무가 그룹 고블린파티와의 협력으로 진행된다.

8세 이상 관람 가능, 관람료는 전석 2만 원이다. 관람권은 인터파크에서 구매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ACC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남도민요의 진 멋'

남도가야금병창진흥회, 26일 광산문화예술회관



(사)남도가야금병창진흥회는 26일 오후 7시 광산문화예술회관에서 다섯번째 정기공연 '남도민요의 진 멋'을 선보인다.

광주시와 광주문화재단의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으로 열리는 이번 공연은 (사)남도가야금병창진흥회의 세번째 민요전으로 예술단 별밭가얏고가 함께한다. 공연의 기획·연출은 문명자 이사장이, 무대 감독에는 박근태, 편곡에 문명자, 강은경, 가야금병창연구모임 '현재'가 맡는다.

특히 이번 공연에는 안숙선 국가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보유자와 문명자 제18호 광주광역시 무형문화재 가야금병창 보유자가 화초사거리, 신

뱃노래, 동덩에타령, 동백타령, 강강술래 등 남도민요를 가야금병창곡으로 편곡해 무대에 올린다.

1부에서는 출연자 모두가 함께 '동백타령'을 노래하고 이어 '보림', '흥타령', '화초사거리', '신뱃노래', '동덩에타령'을 펼친다. 2부에서는 문명자, 김서윤, 김해인, 강세희가 가야금병창으로 짜여진 강강술래로 흥을 돋우고 15명의 무용단원들이 멋스러운 동작을 선보인다.

공연은 전석 초대로 진행되며 사랑의 모금함을 통해 모인 기부금으로 쌀을 구매해 어려운 이웃을 도울 예정이다. 문의 010-3605-8939.

/김대인 기자 kdi@kwangju.co.kr

## '한 발, 한 발' 동심으로 가는 길

이지담 시인, 첫 동시집 '낙타 가족' 펴내

"시창작 교실에서 어린이들을 만나고 오는 날 내 마음은 한없이 맑아졌습니다. 동심으로 가는 길 내가 한 발 한 발 옮길 때마다 무성한 숲의 오솔길이 보였습니다."

광주전남작가회의 회장인 이지담 시인이 첫 동

시집 '낙타 가족' (초록달팽이)을 펴냈다. 지난 2014년 제22회 눈높이아동문학대전 아동문학상 동시 부문 최고상을 수상한 이지담 시인은 이번 동시집에서 어린이 눈높이와 마음에서 작품들을 선보인다.

시인은 동시를 가까이 하면 할수록 재미있는 생각을 하게 되고 생각의 폭이 넓어짐을 느낄 수 있었다. 어린이들에게 동시라는 빈 의자 하나를 만들어주고 싶었던 이유다.

시인이 상정하는 의자는 맑고 깨끗하고 따뜻하다. 어린이들을 위해 그런 의자를 만들어주고 싶은 것은 모든 동시를 쓰는 이들의 한결같은 마음일 것이다.

"구름으로 만든 폭신한 의자/ 꽃으로 만든 향기나는 의자/ 솥사탕으로 만든 달콤한 의자/ 바람으로 만들어 어디든 갈 수 있는 의자/ 엄마가 '사랑'라고 말해주는 기쁨 따듯한 의자/ 방으로 만들어 뜰어먹을 수 있는 의자/ 가장 빛나는 별로 엮은 의자/ 상상으로 쌓은 오솔 의자 등"

작품집에는 순진무구한 어린이들의 모습이 나온다. 학교 가는 일도 잊고 울퉁이 춤사위에 넋을 잃은 아이부터 우렁이를 잡느라 웃이 흠뻑 젖은 채 학교에 늦은 아이까지 다양하다. 비 오는 날 뒤집힌 우산을 버리고 비를 맞으며 하늘 높이 뛰어 오르던 아이도 만날 수 있다.



아이들의 가능성을 시로 그려낸 작품들 눈에 띈다. '아무도 모르죠'는 이 땅의 모든 아이들을 향한 애정과 신뢰가 담긴 시다.

"산수유 노란 꽃에서/ 빨간 열매가 맺으리란 걸 / 어찌 알았겠어요// 깨알만 한 작은 무씨가/ 내 다리통만 한 무로 큼지/ 누가 알았겠어요// 못생긴 감자 반쪽이/ 예은이처럼 예쁜 보라꽃을 피울지/ 나도 몰랐는걸요// 오늘은 40점 받아왔지만 / 엄마! 나중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일 이잖아요."

오늘의 점수로 아이들을 환산해서는 안 된다.는 무언의 가르침이다. '깨알만 한 무씨가 다리통만 한 무로 크게 되리라'는 것처럼 아이들의 무한한 가능성을 믿고 그 자체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의미다.

한편 이지담 시인은 2010년 서정시학 신인상으로 등단했으며 2019년 미래서정문학상을 수상했다.

시집 '고전적인 저녁', '너에게 잠을 부여주다' 등을 펴냈으며 '자물통 속의 눈'이 2017년 세종도서 문학나눔에 선정됐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광주 통기타 낭만을 노래했다

광주문화재단, 통기타 음악 50주년 기념 공연 성황



광주 통기타 음악 50주년을 기념하는 공연 '광주 통기타 낭만을 노래하다'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광주문화재단이 지난 17일 5·18기념문화센터 공연장에서 연 이번 공연은 지역 통기타 음악의 출발에서 오늘까지를 조망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특히 이번 공연은 광주에 통기타 문화의 씨앗이 뿌려진 1972년부터 50주년이 되는 올해 개최돼 그 의미가 각별했다. 이날 공연에는 1972년 광주에 통기타 문화를 들여온 1세대 원로 국소남 씨 외에도 '빙빙방'의 가수 하성관, '바위섬'의 김원중, '지리산' 정용주 씨 등 지역의 통기타 초기 멤버들이 대거 출연했다.

80년대 이후 90년대에 활동했던 한종면 씨, 1

세대 기현수씨의 아들 기도은 씨까지 20여명의 원로·청년 통기타맨들이 함께해 의미를 더했다.

특히 광주 통기타 모임 '외두메'의 창립 멤버이자 작사가인 김순곤 씨가 특별 출연했다. 김 씨는 "광주가 이런 일(통기타 50주년 공연)을 해낸 것이 너무 자랑스럽고 고맙다"고 뜻깊은 감사를 표했다. 이에 화답해 한종면 씨가 '고추잠자리', '바람의 노래' (조용필 곡) 등을 연주해 박수갈채를 받았다.

한편 이날 공연에서는 통기타 1세대 국소남 씨의 저서 '광주 포크 음악 반세기-통기타는 영원하다'도 공개돼 눈길을 끌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